

박남희 <기술학이 아닌 해석학으로서의 의학 - 가다머의 의철학>

4강 가다머의 주체와 객체에 대하여

◆ 1 교시 : 하이데거와 가다머

▲하이데거, ‘세계 - 내 - 존재’

그래서 건강하다 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빼버리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과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how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사실은 헤겔에서부터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해요. 헤겔의 변증법에서 정이라 라는 것이 있으면 헤겔 이전에는 정은 항상 정이었고 반은 항상 반이었어요. 그런데 정반에 대해서 합이라 라는 것이 새로운 개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연 발생적으로 반이라 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살아 간다라는 것은 죽어있는 사물이 아닌 다음에야 이 안에 자체 내적으로 뭐가 같이 있다 라는 것이어요. 같이 업으로서 가 아닌 융합된 존재다 라는 것은 사실은 헤겔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이 모순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모순이지요. 병든 모순과 내버려야 될 모순과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될 모순이지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열악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힘으로 하여서 승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제는 뭐냐 건강함이란 뭐냐 이것을 빼버리느냐 안 빼버리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게 하느냐에 있다 라는 것이어요. 그래서 자, 다시 또 돌아갑시다.

그래서 인제 나라는 것의 개별자에 목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주체가 어, 여기서 개별자의 자기의 실존을 보면서 주체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는데 이때 주체란 인제 헤겔 이후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주체에는 어떤 주체냐 하면 여태까지 주체는 마치 무중력 상태에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아무런 주변의 관계 속에서 없는 개별적인 하나의 고 주체만 가지고 우리들이 인식을 했는데 하이데

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주체는 뭐냐 하면 ‘세계 - 내 - 존재’ 가 돼요. 자, 그 헤겔 전에는 ‘세계 - 내 - 존재’ 가 아니었지요.

그냥 개별자, 혼자 있는 주체였어요, 홀로 있는 주체. 그래서 혼자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마치 무중력 상태의 이 주체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아무런 타자와 자기 주변의 환경에 관계없이 주체 문제만 목도했는데 인제 그 하이데거에 의해서 이 주체란 어떠하냐하면 세계 - 내 - 존재예요.

그래서 ‘세계 - 내 - 존재’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서의 주체지, 이 주체만 달랑 이야기해 가지고는 사람이 말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사람의 주변을 싸고 있는 이것을 같이 봐야지만 이 사람이 읽혀지는 거죠. 주체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주체는 다른 말로 하면서 자기 혼자 딱 떨어져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부모로부터 아무리 유전자를 받았어도 그 유전자가 발현되고 안 발현되어지는 것은 이 주변 환경과도 연관이 되어 지는 것처럼 이 주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체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완전한 주체가 아니라 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어 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전에는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교통하는 존재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자기 의지, 이때의 주체는 의지,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지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개별적인 주체는. 그런데 이때의 주체는 어떤 문제로 넘어가게 되냐 하면 ‘세계 - 내 - 존재’ 이기 때문에 이 세계와 교통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교통할 수밖에 없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세계) 이렇게 배제하고는 이 주체를 말할 수 없게 되지요.

▲주체의 확장, 가다머



자,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런 ‘세계 - 내 - 존재’ 로서의 주체를 조금 더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다머예요. 이 가다머 라는 사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200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00년에 태어나서, 외우기도 싫어요. 딱 떨어져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모에서

현대 철학사에서 발전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는데 이 가다머는 주체를 어떤 주체를 보냐 하면 이것은 ‘실현의 주체’ 예요.

하이데거가 ‘세계 - 내 - 존재’로서의 주체까지는 봤는데 거기에서 역동적인 관계성까지는 끌고 가질 못했어요. 이 하이데거의 ‘세계 - 내 - 존재’는 뭐냐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가다머 하고는 조금 다르게 방향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 - 내 - 존재’라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존재가 스스로 헤겔처럼 떠나서 우리를 떠나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란 뭐냐면 현 존재에서만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존재자를 통해서 존재는 자기를 드러 낸다 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다머 하고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존재를 드러내고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존재가 있기는 있는데 어떤 존재냐 하면 이전에는, 하이데거 이전에는 뭐예요? 실체로서의 존재예요 실체. 그렇죠, 이해 되세요? (자, 이것을 그냥 다시 지워버리고) 하이데거에서의 존재는 그 이전에는 뭐냐 하면 자, 존재라 하는 것이 하이데거는 존재를 굉장히 뭐냐 하면 그 현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인간들, 생명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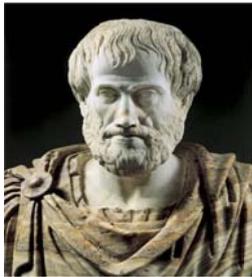
그런데 내가 돼지가 되어본 적도 없고 내가 신이 되어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란, 우리 사람이란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세계 - 내 - 존재’라 라는 것을 인제 알게 되었지요. ‘세계 - 내 -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환경과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 가다머, ‘실현의 주체’

그런데 이때에 이 존재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 존재하고 이 존재하고 같냐, 요거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목적하신 바는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 인간이라 라는 것은 세계 내존재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Da Sein'이에요. 이

게 뭐냐 하면 존재가 여기에 다 있다. 거기에 있음 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 하면 ‘현 존재’ 라고 해요.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피조물로서의 우리, 생명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이 같아져버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전에서 존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실체라 라는 어떤 모습은 입고 예를 들어서 형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도 존재란 이렇게 저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사람들이 규정을 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하고 맞지가 않으면 2단이다 3단이다 6단이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생각할 때에는 뭐냐 하면 그런 존재, 이러한 어떤 실체를 입고 있는 이 존재는 더 이상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아까처럼 뭐냐 하면 이 이렇게 신이란 뭐냐 하면 생명체로부터 점점 점점 보다 더 나은 생명체로 그래서 제1원인을 우리들이 여태까지 신으로 고백했는데 이런 신으로 고백한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 역시도 어떤 일정한 형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모 든,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요. 완전해야 되고 어디에나 존재해야 되고

이것은 만약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가 없죠. 일정한 공간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있으면 - 이 그림이 너무 못 그려졌다. - 이것 그림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것을, this is 그러면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 어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자, 이게 어떻게 파이프예요, 이건 그림이지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파이프 아니어요.

그런데 파이프를 그린 것이니까 이건 파이프예요, 그러면 파이프지요. 그렇지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예, 이것, 이것 이해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왜 그 ‘도’ 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에서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을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이 되어 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서 여기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은 장미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장미가 되어 질 뿐이지 이것의 본질은 가려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름 붙인 것이지 사실 장미가 아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미와 본질을 동질화 시켜 버려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지식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기에 하이데거도 뭐냐 하면 결국 뭐냐 하면 이것 역시도 신도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만들어진. 그래서 신은 이렇게 말해 줄 수 없어야, 이것에, 여기에서 뭐냐 하면, 이것은 인간과 신의 관계는 단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것은 피조물이 연장선상에 있는 신일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신 앞에 더 이상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진 신이 아니다. 신이란 뭐냐 하면 이렇게 형상으로 실체화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어느 곳에서도 있게 되고 완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있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형상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형상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을 드러내는 방법, ‘주체’ 와 ‘객체’

그러나 사람한테 자기를 드러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피조물 안으로 뭐예요? 존재해야만 해요. 신은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인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신은 저 혼자 이렇게 인간을 떠나서 저 혼자 있을 수 없고 신이 존재하려면 우리들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들과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 혼자 떨어져 있는 신은 이미 그것도 피조물이 되어요. 왜? 따로 형상을 가지니까.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전체라고 해요. 전체 중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것은 이미 그림을 그리는 순간 전체가 되어 질 수 없죠. 전체는 아무런 그림도 그릴 수가 없을 때가 전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것을 ‘무’ 라고 이야기해요. 서양에서는 그것을 ‘존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존재가 존재자가 되는 것은, 없어서, 없는 것이 갑자기 ‘땅’ 하고 생겨서 있

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가 정, 정,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존재가 움직여서 뭐로 하나 이렇게 드러나면, 꽃으로 드러나든지 바람으로 드러나든지 뭐로 드러났을 때 그때 뭐가 되어요? 자의 측면이 되는 것이어요.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관념자, 보편적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어요. 무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개별자로서 ‘나’가 되어 질 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남희, 영희, 철이, 철수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어, 사람 데리고 와 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인 누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선생님, 사람을 데리고 와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하면 사람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러면 누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어요. 영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지요. 아니면 철수를 데리고 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존재자와 존재의 관계

마찬가지로 이 존재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어요. 존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요? 그 누구 개별적 안으로서의 사람이라는 것이어요. 영이라는 그 개별적 존재자 안에서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되시지요? 예,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이데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존재자와 존재와의 관계를 말하고 싶어서 이 ‘존재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존재란 그러므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기에요? 그건 다 뭐예요?

우리들이 근대처럼 개별자 더하기 개별자 그래서 토탈(이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개인 안에 나는 카운터로 치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일 개인이지만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 나는 뭐예요? 전체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 라는 것은 뭐가 되어요? 나는 유한자가 되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뭐예요? 무한자이기도 해요.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근대에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있으면 정부는 개인보다 커요. 그래서 뭐냐 하면 힘이, 권력이 정

부에 의해서 개인은 희생됨이 마땅해요. 그래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이해를 따지지 말고. 정의니, 선이니 따지면 큰일 나요 붙잡혀 가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개인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은 누구도 침범해 올 수 없는 전체하고 같아요.

무한자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따져야 되요. 요새 제가요 수원 구치소에 강의를 갔더니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교도관한테 물어 봤어요. 재는 눈망울이 참 선하고 죄를 지었을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죄를 저서 저렇게 많은, 젊은 애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 애들은 아무 죄과가 없어요. 여호와와 증인이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신 군대를 가기를 기피하고 대신 형을 사는 거예요. 군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총칼 가누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자기의 그것을 여기다가 동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니까 현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뭐냐, 물론 우리들이 요거를 카운트할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거는 뭐예요.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요거는 카운트 되지만 이 하나의, 일개인을 다룰 때는 자연과학적으로 방법으로 다룰 수 없는 무한자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요 방법은요.

선생님, 일 더하기 일은 몇이어요? 예? 일 더하기 일은 몇이어요? 아이고 유치원도 다 아는데..... '2' 잼아요, '2' . 이거는 뭐예요. 자연과학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요거요. 요거는 일 더하기 일은 몇이어요? 이걸 무한이어요. 둘도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셋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무한이어요. 한 사람의 여자가 한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셋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가임 여성의 경우에는 원하면 낳을 수 있지요. 또 안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무한이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여덟시가 되었으니 가다며 들어가는 것은 5분간 휴식을 하고 가다며 들어가

고 나면 ‘인간에 대한 주체’ . 그 이야기를 오늘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 2 교시 : 주체라는 문제

▲가다머, 융합되어 가는 존재

주체다 라는 것이 인간은 주체가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에 의해 수단이 되어지거나 방법이 되어 지거나 되어 질 수 없다. 누구든지 아마 아카데미에서도 어느 선생님이 ‘빈중심’ 이란 책을 쓰셨던데 박, 어떤 선생님,.. 빈 중심이라는 이야기 쓰셨어요. 여기에 현대철학에서는 뭐냐 하면 주체 없음의 주체를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긴데 이 가다머 다음에 하이데거가 ‘세계 - 내 - 존재’ 를 이야기하고 가다머가 실현의 주체를 이야기하고 레비나스로 넘어 가야 빈 주체라는 이야기가 말해지게 돼요.

자, 이, 하이데거와, 아까 이야기했지요? 서로 역량의 주변을 받는 주체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했지만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받아서 가다머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이렇게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자기의 뭐예요? 전승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존재다 이야기하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전승이라는 것은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세계 - 내 - 존재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승. 또는 자기 선입견, 선판단 그 다음에 이미 자기한테는 뭐가 주어져 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존재가 자기 지금의 현실하고 하나의 지평 융합을 해서, 지평 융합을 해서 자기로 새롭게 실현해 나가는 존재, 한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끊임없이, 다르게, 달리,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을 수 없어요. 늘 끊임없이, 달리 자기를 실현해 가는 존재, 물리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세포가 우리들이 산다 하지만 한쪽에서

는 죽어가고 생성되어가듯이 여기서도 뭐냐 하면 늘 뭐냐 하면 융합해 가는 존재, 그런데 이때 융합해 갈 때 뭐냐 하면 어, 정신, 육체, 감성 오성 인간이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라는 것, 인간은 나라는 존재 안에 자기가 맞이하고 모든 현실, 자기한테 주어진 것, 그 다음에 자기 몸뚱어리 모든 것들이 같이 하나로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라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융합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은 융합되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시간이 가면 갈 때마다 융합 되어져서 이렇게 오는 존재인데 그 동안 가다머가 볼 때에는 사람에 대한 인간 이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봤냐 하면 분절된 존재로 봤다 라는 것이어요.

정신 따로 빛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래서 그 동안 의학은 그 따로따로 중에 뭐만 따로 다루었다? 육체만 따로 떼어서 다루었다. 이거죠. 그래서 가다머는 뭐로 봐야 된다 인간을? 분절된 하나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 나아가는 존재 속에서 의학을, 그런 인간을 볼 수 있고 다루어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배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면 그동안은 칸트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했대요.

자, 수영을 하려면 여러분들 준비 운동을 하고 오른 손을 뻗으세요. 여기 왼손이죠? 그 다음에 돌리세요. 이렇게 고개를 하고요. 한번 두 번이요. 푸하푸하 이렇게 해서 다 배웠어요. 육지에서 땅 위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제부터 수영하세요. 할 수 있냐는 것이어요. 이론을 아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물론 하겠다고 물 먹고 들어가고 드드드 떨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 우리들이 여태까지 뭐라 하나 하면 인간은 이론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했다 라는 거예요.

▲융합되어가는 존재, 인간

이 이러한 것은 결국은 방법이었고 또 뭐냐 하면 이 방법을 어떤 부분적인 것으로 분절시켜 놓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였지요? 보편이라는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추상명사였지요. 그 인간, 영희, 철수가 아니라 뭐예요, 보통 명사 인간을 다뤘다는 것이어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을 했다 라는 것인데 가만히 들여다 보잖아요 이제. 우리는 수영

을 배울 때 방법도 부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시골에서 개구쟁이들은 어때요. 수영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도 수영들 더 잘 하지요. 그렇지요.

그냥 그네들은 이렇게 이론을 알고 푸하푸하 하면서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땀만 입고 높은 데서 아래로 풍덩 떨어지고 자기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막 요동치면서 막 푸하푸하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하니까 물에 뜨거든요.

저절로 수영이 되어 지고 저절로 이렇게 되니까 개해업도 되어 지고, 그러면서 이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부모가 너 이참 세상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누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누가 점지해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세상이라는 데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던져진 존재가 삶이라는 바다에 풍덩 내가 내던져져서 거기서 물과 함께 더불어서 수영을 배우듯이 삶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어요. 이론이 알고 나서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절대화시키고 이것에 맞춰서 우리들이 수영을 하려고 들면 저, 시험 볼 적에도 그랬어요.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저는 여기서 보지 않고 밖에서 봤는데 이 영어로 찰라찰라 하는데 뭐 세모가 어떻고 뭐하고 막 그랬는데 에시 씨, 내가 느낌으로 해 느낌으로 했는데 그게 더 잘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지각도 있고 오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직감적이다 라는 것이 이 통념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행해질 수 없는 직관이라 라는 세계가 있다 라는 것이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알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감지를 하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직관이 더 뛰어나게 작동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익숙해져서 우리들의 또 다른 인간이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인 직관에 대한 것을 많이 놓치고 있다.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이 이론이라는 것은 왜 끊임없이 바뀌고 다르잖아요. 시간에 의해서 뭐냐

하면 과학의 이론도 바뀐다 라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그 과학이 맨 처음에 주어지는 테제 앞
에 놓여 지는 이것도 뭐예요? 우리들이 어떤 이해와 해석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론에 의
해서 주어지고 거기에 방법론에 의해서 결론이 나오고 이것을,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진리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나한테 작동되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 하나 하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산다 라는 것 자체가 이론이,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그것이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은 어떻게 있다, 사
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적용하면서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순간 적용하면서 살아져가는 것,
이것을 뭘로 봐요? 동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시적으로 보
는 것이어요. 가다머는. 그래서 이것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달라요.

▲ 가다머의 ‘이해- 해석’

그런 다음에 또 가다머에게서는 주장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하기 위해서
는 뭐냐 하면 여기 먼저 ‘선이해’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던 지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는 것을 무시한다 라는 것이 아니어요. 그것이 가치가 없다 라
는 것이 아니어요. 그것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 하느냐
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 이해 한다 라는 것, 곧 뭐가 왜요? 적용이 되어 지는 거예요. 자기가 오
토매틱으로 내 심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에는 내 증상으로 그렇게 적용되면서 이미 있다 라는
것이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되어 진다 라는 것이어요. 그래서 이 이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가 결국 내가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정답이다 또 진리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개념이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가다머가 말하는 진리란 과
학 이상에서 말하고 검증해서 검증해서 관찰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
하는 진리란 이게 진리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예요.

이 진리란 뭐냐,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산다 라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뭐, 어떤 지식이었든 전통이 됐던 엄마의 꾸지람이 되었든 나의 환경이 되었든 이미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사느냐가 내 삶이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어요. 해석. 그래서 이 이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돼요.

자, 이해는 두 가지 이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이해 하나 못하느냐 대상에 대한 이해, 그러나 가다머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곧 뭐예요. 나의 삶의 근거예요. 자, 이것이 하버마스하고 가다머 하고의 다른 거예요. 또 여기 제가 논문에 나왔던 야스퍼스하고 그 가다머 하고도 달라요. 자, 앞에서 나왔던 다른 사람들은 하이데거하고 가다머만 같고요. 나머지 딜타이, 슈라이어마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이 이해라는 것은 얼마만큼 대상을 얼마만큼 대상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해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역시 여기에도 환자가 있어요.

여기 낙타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놓고 얼마만큼 그 환자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치료의 관건이 되어 지지요. 그러나 이때도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해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다머 하고 다른 해석학자들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놓는다 라는 것, 그래서 치료하는 것, 누가 치료한다 라는 것이어요? 의사가 치료한다 라는 것이어요. 그런데 가다머는 이게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에 이렇게 의사가 환자를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환자가 의사에 말을 배제하고 자기가 알아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참다운 인간 대 인간의 전인적인, 그냥 그냥 지식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신뢰와 권위를 인정하면서 참다운 대화가 오고가고 그것에 의해서 진단도 치료도 기구도 이용하고 약물도 이용하고.....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치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치료는 누구에 의한 치료라기보다 치료가 이 사이(환자와 의사)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다머에서는 ‘물이다’ 라는 개념이 참 중요해요.

▲가다머의 ‘물’ 개념

이 치료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다머의 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것을 언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어요. 우리들이 언어를 먼저, 언어라는 개념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들이 언어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게 언어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이 언어나 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언어를 누구의 소유격이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언어라는 것 자체는 누구의 언어를 떠나서 언어 자체가 있다 라는 것이어요. 다시 말을 하면요.

아까 제가 장미 이야기 했잖아요. 장미는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어떤 것을 장미라고 이름 했기 때문에 장미예요. 그런데 장미라고 이름 하지 않아도 이견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를 뭐냐 하면 우리가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의상. 그래도 이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어요. 저는 장미라고 이야기하지 싫어, 나는 이것을 허니라고 이야기 할래 너무 예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지 나한테는 이게 허니라고 의미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의미 이해예요. 그럴 때 이것의 본질이 가려지느냐 아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사람은 장미라고 했어요. A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미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은 허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장미예요. 허니어요. 장미도 아니고 허니도 아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일 뿐이어요. 언어는 나의 언어인 것도 아니고 너의 언어도 아니고 언어일 뿐 이예요. 이해되세요, 안되세요?

▲가다머, ‘놀이’ 에 대한 해석

다시 그러면 놀이라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놀이는, 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다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노는 것이 아니어요. 이해가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저도 이것을 이해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놀이라 하는 내가 놀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놀이가 놀아지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 참 어려우시지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예를 들면 자, 축구, 여기 축구장이 있어요.

자, 축구를 해요. 뭐가 축구여요? 축구장, 축구화, 축구복, 축구복 축구선수 있다고 축구라고 하지 않아요. 축구는 언제 축구예요? 내가 있어서 축구여요? 그게 아니어요. 놀아 줄 때, 같이 들어갔을 때 이야, 골인 선수들이 이리 뛰고 골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때 할 때 뭐예요.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갖추어야 할 무엇들을 만들어서 내어질 뿐이지 놀이라는 것 자체는 이것에 의해서 많이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어요. 이것과, 이것과 이 규칙과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막 할 때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놀이를 노는 것이 아니라 놀이가 놀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래서 놀이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한다는 것도 뭐냐 하면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치료에 같이 동반해서 참여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때 규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축구할 때, 야, 우리 사람이 다 학원가고 없으니까 우리 네 명, 네 명하자 그렇다고 축구가 안 되나요? 우리 열 명 열 명 하자 그렇다고 축구가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자, 우리가 축구공 없어도 축구해요. 공 없어도 축구해요. 저쪽에 못하는 나라에서는 돼지 허파에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말아서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참여하는 자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에 의해서만 놀이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의 여기서, 이 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떨까요. MRI를 찍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볼까요? 이 약물을 치료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거기 참여는 누가? 거기 여기 가짜가 그것 뭐예요 그때그때 규칙을 만들어 내듯이 이런 이러이러한 진단 기기와 방법과 이론적 지식, 이런 것들과 환자의 모든 심리 상태, 뭐, 여러 가지 여건 여건, 경제적 능력, 뭐 이 뭐 주변에 있잖아요. 와이프하고의 관계,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집하고의 거리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같이 고려하면서 여기 치료에 참여하는 것, 그럼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사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시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대상이 되어요? 이쪽이 주체고 이쪽이 대상이어요, 아니면 이쪽이 주체고 이쪽이 대상이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체란 그런 주체가 아니어요. 여기서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 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주체고 여기는(환자)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이예요, 이것을 잘못된 것을 잡자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치료라는, 마치 놀이라는 게임 안에 들어가듯이 치료라 라는 것도 뭐냐 마치 치료에 참여 하려는 것 같이, 그래서 환자는 지식적으로나 규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잘못하면 뭐로 빠지기 쉬워요. 수동적이 되어져요. 자기는 치료를 받는 자로 전락되려고 해요. 의사가,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뭐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잘 써 먹는데 시소놀이가 되려면 이게 이게 이게 어느 한 쪽에 힘이 기울어지면 시소놀이 안돼요. 이렇게 되어져요. 어느 한쪽으로 그런데 시소놀이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요. 양쪽이 균형이 주어졌을 때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의사는 뭐냐, 그럼 의사와 치료인들은 뭐냐 하면 환자는 약자잖아요, 일단. 자기가 수동적이 되어 지고 자꾸 움츠려들고 가장 낮은 다운되어지는 주체이기를 놔 버리려고 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주체인 것을 그래서 같이 나와 같이 더불어 시소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해요. 의사가 이 사람이 무게가 무겁다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앞으로 오게 하기보다는 내가 뒤고 가서 어 이 우리 이거, 거리 무게 곱하면 질량 같아져서 이거 하는 것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무거우면 내가 뒤로 가고 이 사람이 가벼우면 내가 앞으로 조금 와서 환자의 무게에 내가 맞추어서 환자가 나와 똑같은 주체의 개념을 가지고 치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굉장히 해석자로서의 의사라는 이야기이지요.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기술자로서의 닥터가 아니라 이해되지요?

▲ 누구든지 주체여야 한다, 현대의학에 있어서의 치료라는 문제

이게 조금 사실 이 개념이 이렇게 쉬운 개념은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가 되어나 하면 누구든지 주체여야 된다 라는 것, 주체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주체인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그러면 복제인간이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가다머 같은 사람은 복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하면 이것도 하나의 인격체로 봐요. 이 세상이 그, 개별적으로 존재자가 되어 지는 순간 주체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 복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켜서 다른 것의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장기를 떼어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보지 않는 입장이지요. 물론 이렇게 돌아가신 분, 그런 것 말고 그러니까 복제를 만들어서 그런 것 뭐냐 하면 수단화 시키는 것이고 대상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뭐를, 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 자체,

그러면은 이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에 현대의학에 있어서 치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갔는데 뭘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 가다머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어, 고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고 나와요. 고통. 이 고통이다 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인간이 가져가야 되는, 아까 죽음이 있고 삶이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 고통이다 라는 것은 이 고통 때문에 인간은 지평을 넓혀가고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유한자이면서 동시에 무한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한자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하면 제한된, 이렇게 우리가 회복선은 완전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게 완전하지 않아서 일부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유한된 자고 부족한 자고 제한된 자예요. 그런데 이 제한된 것을 재앙으로 높이는 사람은 고통을 그래서 그것을 이것을 막 이렇게 채워갈려고 이것을 채워갈려고 그래서 조금 더 보톡스도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도 하고 갈고 닦고 그렇죠? 남의 것도 띠어서 무슨 산삼도 먹고 피도 마시고 이를 한단 말이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냐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인간을 이러한 실제적인 것으로서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뭐로 하나면 이 고통이다 라는 것이 나한테 유한한 자는 이것이 유한함이 곧 완전함이에요.

◆ 3 교시 : 인간에 대한 이해: 주체와 객체화

▲결핍에서 자유로

여자가 남자가 되어 지는 것을 남자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여자는 뭐예요? 부족한 여자예요 모자란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남자가 부족한 자이죠. 그래서 이 완전이란 개념이 참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뭐가 완전 하나, 여자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완전해요.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완전해요. 그래서 그건 그 자체로 완전한 것, 이게 부족하다 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유한한 자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것 자체가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안고 가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현대의학은 항상 제거 쪽으로 나갔는데 그것보다는 감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치료’ 라는 것이지요.

왜냐, 왜냐. 자 이것도 인제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단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어서 단혀 있으면 사람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근대에서의 주체는 완전한 이것을 주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아니어요. 이게 열려 있어요. 이것이 부족하고 유한한 자이라고 깨닫는 순간 사람은 자기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 나가려고 한다 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이해를 다른 사람의 지평을 더 확장시키면서 사람은 더 성숙하고 온전해질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뭐냐 이것을 하나의 결핍으로 느끼느냐 이라면 자유로 느끼느냐 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 자, ‘결핍으로 느낀다’ 라는 것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남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너무 그러는 것, 그래서 남자같이 되려고 한때는 여성들이 그랬죠? 70년대 막 스포츠머리로 자르고 바지도 군대 물감 들여서 옷 입고 목소리도 짝 깔고 누나, 오빠, 이런 것 아니고 형 이렇게 하면서 동등해지려고 기준이 거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뭐예요.

어, 여자 뭐 어때, 내가 나로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어요. 아니 해바라기가 채송화처럼 되려고 해도 해바라기 아니지요. 채송화가 해바라기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채송화예요? 다르기 때문에 채송화는 채송화로써 키가 작지만 완전한 것이지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가 키가 크고 바라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부족과 결핍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자유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향유가 되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결핍, 그래서 평생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크크크크크’ 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맨 날 죽겠다 그렇죠. 그래서 맨 날 병원을 쫓아 다녀요. 완전해지는 건강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부족을 자기의 신체 유약함을 뭐를 느껴요. 감내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왜, 간질이 있었죠?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였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 지는 계기가 되어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넘어서서 자기의 결핍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향유로 감내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자유가 건강하게 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건강하다 라는 이야기가 자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참의사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고통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기는 것이 오히려 그 고통을 빼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자, 의사가 수술을 강요하는 게 많아요. 얘기를 ‘어어어어’ 막 이렇게 자연분만하고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그 사람의 고통 피하려고 하니까. 자연분만 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 무서워요. 아휴” 뭐 이러면 정말 해야 될 때가 있지요. 해야 될 때에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수가를 높인 다거나 이렇게 ‘에에에엥’ 이렇게 하면 고통을 빼버리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말 좋은 의사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기쁨,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견디게 하고 조금만 더 참아서 유도해서, 이게 뭐냐면 명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꿰매는 것 잘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를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정해 주고 그 여성으로 하여금 편안히 그러나 힘들어도 내가 이것을, 자연분만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끌어주는 의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참의사가 되는 것이지요. 굉장히 다른 측면이 되어 지지요.

그런데 너무 참아도 문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지나치게 고통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내할 수 있는가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건강함이 주어지는 것이어요. 미련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질문 :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종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약간, 종교성,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신앙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든지 종교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든지 종교 스투운 그런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을, 구분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다머가 캐톨릭 신자니까 아마 배경에 조금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종교 힘이라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대상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신도 대상화시키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대상화 시키고, 그런데 이 대상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그 대상화를 놓고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뭐냐 하면 완벽한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 완벽함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인데 이것이 다시 인간한테 적용되어져서 인간을 뭐로 만들어요. 온전한 주체로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 대상화가 다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대상화시켜 놓은 것이 누구다, 인간이다.

그래서 이 대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 인간이 이 대상화시켜놓은 것, 이 사이의 관계는 만약에 어떤 것 한쪽이 대상화되어질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질 것이니까 온전한 관계 그것이 뭐냐 주체와 주체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 어느 것도 대상화되어질 수 없고 동등한 관계, 그렇다고 이것이 평균으로서의 동등함이 아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야 만 이 관계가 제대로 온전히 이것에 살아있는 생동, 생명력이 발휘되어질 수 있고 이것도 자기 안에 생명력이지요. 생동성, 그것이 발휘되어질 수 있을 때에 이것이 건강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럴 때만이 이 온전함이 피어남이

라고 해야 할까요? 강해진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던 같아요.

▲우리 사회의 현실 - 타자에 대한 대상화

우리들이 보통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자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들이 오랫동안 참지요. 그러다가 노후에 요새, 반란을 일으키죠. 그 동안에는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여태까지 잘 살아왔고 잘 살았는데 군말 없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너는 문제없었지만 나는 문제가 있었다. 어디에 있었느냐 내 마음 속에 .

그래서 나는 늘 언제나 때만 기다렸다. 화병이다. 화병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나온 병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어느 누구도 타자를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주체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졌을 때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선생과 학생의 관계도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목사와 신도의 관계도 평등한 주체, 주체의 만남 이어야지 그 안에서 본연의 그것이 갖고 있는 생명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발휘되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선생님 말씀도 조금 일리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들은 신까지도 대상화 시켰다 라는 것, 신까지도. 그런데 신이라는 것 대상에다가 결국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에다가 인간이 비는 것이어요. 자기 뭐가 돼요. 자기가 자기를 소외시키는 현상이 되어 지는 것이지요. 자기가 자기한테 먹히는 것이어요. 그것이 아니라 신이라 라는 것은 대상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형상으로 이것이 되어 지는 말하는 순간에 신이 되어질 수 없다, 뭐냐 신이라라는 것은 내 인간을 살게 하는 것, 존재를 떠받치는 것,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재란 무엇이나 도대체. 존재라는 말은 종교적용어로 보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흡사하게 하면 존재란 모든 존재자들을 존재케 하는 바로 그것이 존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하자면 존재란 이것을 종교적 용어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란, 신이란 이 세

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있게끔 하는 그, 바로 그것, 그래서 이 존재자를 있게 하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신이 있어서 창조가가 되어져서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관계로 왔는데 하이데거는 이런 하나님이란 없다 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있는 곳은 인간하고 따로 떨어져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은 이 인간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전체가 되어 질 수 없잖아요. 그럼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소부재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신이 있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와야 되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요. 그렇죠? 그래서 신과 인간이 뭐냐 하면, 이 신이 있을 자리는 이 피조물 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존재자를 떠받치고 있는 그, 그때는 실체가 아니라 신이 되어 지고 독성이 되어 지고 생명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꼬르는 아니어요. 바로 그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신이라고 까지 이야기를 한해요. 그런 말을 피해요. 그렇게 되면 또 대상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피하고 우리들이 과학은 현상을, 만들어져 있는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 그것은 신비다 라는 것이지요. 이걸 신비의 영역으로 두잖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인간에 대한 이해 -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이성에 대하여

(질문 : 이게 그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의 문제로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의학의 학문적인 체계나 방법론 사이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들이 근대에서 이성에 의해서 과학이라는 것이 출발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의학이 기초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다머는 이것이 문제시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과학이란 이성에 의해서 인간을 이해를 한다는 것, 인간을 다룬다는 것이어요.

인간은 이렇게만 다뤄질 수 없는 존재인데 오로지 only, 이렇게만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서 뭐냐 하면 가다머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이 이성이라 라는 것이 또 따로 있다. 이것은 다른 이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아직,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안됐고요. 2학기 때 아마 제가 나올 거예요. 거의 다 했는데. 과학의 이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만 그것으로서 담아낼 수 없는 그것이 있어서 의학은 요것까지(과학과 의학의 사이)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문이나 이렇게 방법적인 체계냐 하면, 방법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 과학의 방법이 있듯이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요것과(과학) 똑같은 방법은 아니어요. 이것과(과학) 똑같은 방법을 시도하려고 한사람이 딜타이어요. 그렇다고 그것도 뭐냐 하면 말만 자연과학이 이 안으로 치밀어 들어오는 것이지 요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딜타이처럼 이렇게 과학이성을 이렇게 우리들의 정신과학 안으로 이것을 그냥 과학이성을 그냥 빗대서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말 표현하기가 참 싫은데 이 ‘과학 이성’ 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정신과학이성’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 과학의 이성으로서 계측되어지고 인지되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이것이 있다 라는 것은 인정하게 되면 요 과학의 방법론으로 쓰는 것을 요기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예요.

요거는 요것과 바른 방법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지요. 요 방법론이 뭐냐 그것이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다머의 입장에서는 전인적인 측면에서의 대화라 라는 것으로 들어가요. 대화. 그런데 아직 제가 대화라는 측면은 이야기하지 않았습시다만 그러면 뭐냐면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요 두 가지를 같이 인간의 이해로 보게 되면 요 방법론이 우리들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이지요.

함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요것만을 사용하던 의학하고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의학이 되어지는 이것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하는 것이어요.

▲선이해 과학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의학적 해석을 과학적 해석, 우리들이 중요한 선이해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가 다 나와서 이론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무시하고 치료를 해요. 이것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a개똥이 b개똥이 c개똥이 똑같이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정 중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들어요.

그럼 이것을 설명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더 현실이지 이게 더 현실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게 더 현실이잖아요. 사길 여기서 왜 그러냐하면 우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학적 지식을 이것을 실재한다 라고 여기에다 가치를 온전히 100%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참 이게 이해되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자 보세요. 지식론이 만들어지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가치가 외부적에서 들어오는 것이 인간이 그대로 이것 그대로 어떤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그대로 아무 여기에 아무 걸림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지느냐 이것, 그대로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A 객관적 실재론인식 대가론적 지식론이어요.

두 번째 그것이 아니어요.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인간이 뭐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것에 의해서 지식이 주어 진다 그렇죠, 두 번째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 만약에 가다머가 이것 필요 없다, 잘못 되었다 그랬다면 2번일 거예요. 환자가 오로지 이거하고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뭘 먹어야 낫는다, 뭘 먹어야 낫는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진단 내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위험할 수 있지요. 얼마나 위험해요. 자기 혼자서 했다가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느 기도원에 안수해서 막 이렇게 했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걸 전혀 도외시하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고친다, 자기가 이러면 낫는다. 그런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가다머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만이 아니라 또 환자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만이 아니라 치료란 이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자기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같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주고받는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니라 라는 것이어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학에서의 질적 치료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게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질적 치료라는 것으로 들어가거든요. 질적 치료가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야스퍼스하고 가다머하고 그 후설의 현상학, 이것이 이제 비교되어지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요.

요, 요것만 우리들이 제대로 철학적으로 이해가 되어 지면 그 의사가 그 동안에 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 데이터, 과학적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도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치료되지 않는 이유가 해명이 되어야 해요. 만약에 여기에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지식이라고 이게 온전함이라면 사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어, 애애, 그것 먹고 애, 나왔다더라. 애, 너도 해 봐. 그래서 했어요. 이 사람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실려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거기 가면 다 나왔다더라.

그걸,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맹목성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느 일방성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이해되어진다면 환자도 환자의 인권은 회복되어지고 의사는 치료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게 여태까지 의사에 의해서만 되니까 뭐냐 하면 의료사고가 나면 100% 누구 문제가 되어지냐 하면, 닥터의 문제가 되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100% 닥터에게 전권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이거든요. 사실은 환자도 인간이지만 누구도 인간이어요.

닥터도 인간이거든요. 내가 나올 때 사실은 와이프하고 싸우면서 나왔어요. 그때 수술하는 것 하고 굉장히 기분 좋아서 수술하는 것 하고 의사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이어요. 이것은 굉장히 유치한 비교이지만 그래서 뭐냐 하면 의사도 인간이라는, 환자도 인간이라는 동등한 관계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뭐냐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쪽이 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다 라는 것이어요.

또 질문이요. 제가 요기 사실은 요기 프로그램에 지금 되어지는 대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문진과 상담

(질문 : 아가가 고통을 감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해서 자기 부족을 결핍으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치료에 대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를 아는 것의 기준을 해석할 수 있는지요?)

기준은 아니요. 그것은 자기만이 아는 거요. 그리고 그것을 의사하고 상담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상담이라는 것이 의사와 환자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제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 대화가 필요한지 그냥 진단만 하고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게 상담에 들어가야 하는지 문진이 아니라 상담이어요. 문진하고 상담은 굉장히 다릅니다.

문진은 일방적인 체크예요. 질문도 의사가 만들어 놓은 것에 환자는 일방적으로 체크만 하는 것이어요. 그게 아니라, 저기가 아니라 대화여요, 대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를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질적 치료라 라는 것이 약 좋은 것 쓰는 것, 의료가기 좋은 것, 그게 질적 치료가 아니라 질적 치료란 그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주체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질적 치료로 들어가는 기본이어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한 80%는 병원에 안 와도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과잉진료가 참 많다고 해요. 환자들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일단 오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약간 동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감기 하면 약, 그 다음에 주사 안줘요. 그런데 우리는 환자들이 와서 선생님 저, 주사 한 대 놓아 주세요. 당신이 치료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내려요.

그것을 옳지 않다는 것이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의사가 듣고 또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의사는. 그러니까 서로 단절된, 개체가 단절된 채, 서로의 대화가 없는 중에 뭐만 해요? 진료, 그것만 가지고 약만 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그것보다도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환자와 의사의 관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후설, 그 다음에 야스퍼스, 가다머의 이런 이해에 관한 치료법이 어떻게 다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